"안락한 노후 필요 자금은 125만 달러"

▲ 미국인들은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 최소 12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인들은 은퇴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 최소 12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계좌에 있는 돈은 8만6천869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연합뉴스' 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업체 노스웨스턴 뮤추얼이 지난 2월 미국인 2천3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필요 노후자금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반면 보유자금은 1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상 은퇴 연령은 64세로 지난해(62.6세)보다 1.4세 높아졌다.

WSJ은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지출과 저축 압박을 받는 가운데 주식·채권 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와 40%를 투자하는 전형적인 은퇴자금 투자기법의 경우 10월 중순 기준 투자수익률이 10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도 은퇴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은퇴 시기를 늦출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59%가 '저축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라고 답했다.

미첼 노스웨스턴 뮤추얼 최고고객책임자(CCO)는 "필요한 은퇴자금은 사는 곳과 생활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르다." 라며 "125만 달러는 충분할 수도, 부족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 올해 들어 첫 플러스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2.6%를 기록했다.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지난 27일 '경향신문' 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2.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전환한 성장률이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공화당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등을 민주당의 경제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왔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각각 -1.6%, -0.6%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던 것에 견줘 3분기 성장률은 대폭 상승한 수치다. 고용지표 호전이 뒷받침한 수출 호조, 꾸준한 소비지출 증가가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금리 인상 기조로 높아진 차입 비용은 위험요소로 지목된다. 1년 전 3.09%에 그쳤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7%를 넘어섰다.

고용 감소 추세도 위험요소로 꼽힌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는 26만3,000개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외부적 요인도 변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무역은 차질을 빚고 있고, 에너지와 식량 가격도 상승세여서 저개발 국들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이 전쟁을 이유로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65세 이상 미국인 10명 중 1명 치매"

65세 이상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2명은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65세 이상 미국인의 10%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지난 25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어빙메디컬센터 제니퍼 맨리 교수팀은 이날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신경학' (JAMA Neurology)에서 2016~2017년 '건강 및 은퇴 연구' (HRS)에 참여한 노령층 3천500명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HRS는 미국 미시간대가 국립노화연구소(NIA)와 사회보장국의 지원을 받아 2만여 명으로 구성된 인구분포 대표 샘플을 조사하는 종단 연구다. 분석 대상 3천500명은 2016~2017년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 알고리듬 개발을 위한 종합적 신경심리 검사와 심층 인터뷰를 한 노령층이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연구 참가자의 10%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다른 22%는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69세에서는 치매 유병률이 3%에 불과했으나 90세 이상에서는 35%로 높아지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연구팀은 "인간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는 향후 수십 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치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컸고, 경도인지장애는 히스패닉계 중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았다. 또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모두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경도인지장애 위험도 커졌다.

낱말퍼즐 정답

1 오	리	2 알				3 미	
인		4 몸	5 살		6 마	라	7 도
			8 붙	박	이		리
9 야		10 모	이		11 동	인	도
12 유	13 조	선		14 태	풍		리
	롱		15 촌	극			
16 해	거	름		17 기	18 반		19 국
	리				20 목	격	자

1444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7에 있습니다)

5			7				8	
	1				2			3
		2	3			6		
7		4		5				
			2				1	8
		6				7		5
	6			1	3	8		
3			4		8			
	7						3	9